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군)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하바 1,2-3; 2,2-4  
**[화답송]** 시편 95(94), 1-2, 6-7, 11, 17-19(◎ 7과 8)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앞드려 경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 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 2독서]** 2티모 1,6-8, 13-14  
**[복음 환호송]** 1베드 1,2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복음]** 루카 17,5-10

성가	8시 미사	입당 2	봉헌 주님 믿나이다	성체 156 166	파견 271
	11시 미사	입당 2	봉헌 주님 믿나이다	성체 156 166	파견 271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 27주일(10월 6일)		연중 제 28주일(10월 13일)		연중 제 29주일(10월 20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글라라(순희)	조레지나(선덕)	이바오로(명국)	허세실리아(홍숙)	임투카(승원)	황테레사(혜정)
제 1 독서	이바오로(명국)	이베드로(기만)	강요한(신호)	심미카엘(태규)	최분도(환준)	정요한(석준)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이골롬바(정연)	김안젤라(영선)	심헬레나(승화)	최분다(수영)	손리디아(정옥)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참된 믿음이 필요한 시대

오늘 독서와 복음은 공통적으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17,5)라는 청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루카17,6)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질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의 다른 곳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회생시키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마르5,36)라고 주문하셨으며, 과연 말씀하신대로 아이를 회생 시키셨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겸손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자신을 내세워서 안 됩니다. 마치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종처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루카17,10)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때때로 “저 분은 참 독실한 교우십니다.”라는 소개를 받는 분들 중에는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오직 겸손함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리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믿음의 자세이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기에 우리는 비록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다행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평가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오에게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2티모1,14)라고 충고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제1독서에서 하바꾹 예언자가 한탄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폭력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이느니 시비요, 생기느니 싸움뿐**” (하바1,2-3)인, 혼탁한 세상에서 “정신이 바르지 않은 **뻔뻔스러운 자**” (하바2,4)들의 한심스런 작태들을 바라보며, 분노와 좌절 속에 결코 쉽게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걱정스런 미래를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늦어지는 듯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하바2,3)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인내를 겸비한 참된 믿음으로 매일 매일을 열심히 살아갑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잘 익은’ 신앙인

가을 날씨는 일교차가 심합니다. 아침저녁은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때로는 따가운 햇살이 썩 반갑지 않지만, 그 덕분에 곡식과 과일은 잘 익어 갑니다. 잘 익어야 할 것은 곡식과 과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햇살’을 듬뿍 받아 잘 익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그럴 때일수록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묵묵히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잘 익어서 때깔이 좋은 곡식과 과일을 보면서 나의 신앙이 잘 익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겸손과 인내, 충실이라는 좋은 빛깔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다양한 통로로 사랑과 은총을 선사해 주십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위로, 충고와 경고를 전해 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일곱 성사 안에 계시면서 은총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손희송 베네딕도 신부  
서울대학교구 사목국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믿음을 되찾았듯이(루카 24, 13-27 참조), 이웃 사람을 통해 주님의 도우심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햇살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우리 신앙은 잘 익게 됩니다.

곡식과 과일이 잘 익으면 빛깔이 곱습니다. 잘 익은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앙인은 겸손이란 아름다운 빛깔을 냅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겸손한 신앙인은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잘난 체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일을 할 힘을 주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심(필립 2, 13 참조)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신앙인은 자기자랑과 교만에 빠지기 쉽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참된 겸손을 보입니다. 제1독서는 잘 익은 신앙인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바쿱 예언자는 흑독한 시련을 당하는 동쪽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느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구원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때가 무르익었을 때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든 시간표가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떼를 쓰고 심술을 마구 부리지만, 철이 들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신앙인은 나의 때와 하느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참고 기다릴 줄 압니다.

제2독서는 잘 익은 신앙인의 특색으로 충실함을 강조합니다. 에페소 교회의 책임자인 티모테오는 공동체 문제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의 스승인 사도 바오로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충실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라는 격려의 말을 합니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본당이나 단체에서 봉사직무를 맡아 일하다 보면 크고 작은

10월의 성인/성녀

데레사(아빌라), 돔니나, 루카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마르첼로, 베난시오  
베르나르도, 시가르, 사라, 시메온, 시몬  
이냐시오, 제노비아, 치킬로, 카이오, 타대오  
프란치스코(아시시), 풀코, 필로닐라, 히에로테오

\*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는 젊은 날을 무모할 정도로 낭비하고 노는 일로 보내다가 중병을 앓았고, 병에서 회복한 뒤로는 판사관이 되었다. 그는 모든 옛 생활을 청산하고 버려진 옛 산 다미아노(San Damiano) 성당에서 아버지의 가게에서 물건을 내다 팔아 성당을 수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때부터 허름한 농부의 옷을 입고 ‘가난 부인’을 모시는 통회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고, 3년 후인 1210년에 교황 인노첸티우스 3세(Innocentius III)가 극도의 가난을 살려주는 그와 11명의 동료들을 인정하였다. 이것이 ‘작은 형제회’, 곧 프란치스코회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본부는 오늘날 아시시 교외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Santa Maria degli Angeli) 안에 있는 포르치우클라(Portiuncula) 성당이였다. 이 작고 허름한 성당에서부터 프란치스코가 설립한 수도회는 역사에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나무로 성장하였다. 이탈리아 내외를 두루 다니면서 형제들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통회와 보속의 생활을 가르쳤으며 지금도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공경은 세계 도처에서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가 세운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도 그의 성덕을 본받고 가난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는 그를 생태학자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하였다.

말씀의 향기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최민순 신부님이 지은 ‘두메꽃’ 이란 시를 처음으로 본 것은 1994년 1월. 이한택 주교님의 지도로 한 달간 성이냐시오의 영성수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예수회 신학생들과 피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기숙사 로비 벽면에 걸려있는 ‘두메꽃’ 이란 시를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두메꽃’ 을 또다시 만나게 된 것은 배론 성지에 있는 피정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꽃밭 위 석비에 새겨진 시의 전문을 발견하게 된 이후였습니다.

“외팔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 살고 싶어라 /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 벌 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 첩첩산중에 /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 햇님만 내 님만 보신다면 야 / 평생 이대로 / 숨어 숨어서 피고 싶어라.”

이따금 배론성지의 피정의 집 ‘두메꽃’ 에 갈 때마다 저는 신부님의 시를 하루에도 몇 번씩 읊고, 외우면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곤 합니다. 지금껏 제가 살아온 인생은 ‘두메꽃’ 과는 정 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외팔고 높은 산 골짜구니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로 들끓는 도시의 광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벌에게 인정받고 나비에게 돋보이려고 기를 쓰고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는 스포트라이트가 조금이라도 빗겨 가면 약척같이 그 화제의 중심에 다시 서려 하였으며, 매스컴에 이름이 끊임없이 호출되어야만 출석부를 체크한 학생처럼 마음이 놓였고, 항상 저에 대한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온갖 찬탄과 박수소리, 선망의 시선에서 멀어진다 싶으면 불안하고 소외감을 느꼈던 전형적인 속물적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속적인 성공은 거둬서 한때 ‘성공시대’ 란 프로그램에서 출연요청을 받기도 했으며, 지금은 암과의 투병이 뉴스적 별류(?)를 더 상승시켰는지 특집프로그램 같은 데서 집요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40일간 단식하셨을 때 악마가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루카 4,6)라고 유혹합니다. 악마는 ‘저 화려한 권력과 명예는 자기가 받은 것’ 이라고 단언하고 만일 내 앞에 엎드려 절만 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얻은 세속의 명예와 화려한 영광은 악마에게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 을 했던 우상 숭배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유하고 세속적

인 권력과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몸짱에 대한 열망, 병적인 성형중독, 미모지상주의, 출세, 타인을 지배하는 힘, 명품, 쾌락, 낙태, 지나친 건강의 추구, 웰빙, 독점적 권력, 식탐, 극단적 이기주의, 중독(거짓말, 섹스, 약물, 알코올), 악의, 탐욕과 교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미신 등...

이 모든 것은 물신(物神)의 소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은 사랑하거나, 한편은 존중하고 다른 편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마태 6,24)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진실로 하느님을 섬기는 가톨릭 신자라면 재물을 버리고 두메꽃처럼 ‘값없는 꽃’ 으로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햇님(하느님)만 보신다면야 숨어서 핀다한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가치관은 지상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고,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보다 굶주린 사람이 더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보다 미움 받고 쫓기고 박해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서 받을 상이 크다.(루카 6,20-26 참조)」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값없는 꽃」 의 절대 가치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아, 제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외팔고 높은 산 골짜구니’ 에서 ‘두메꽃’ 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 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마태 4,10)라고 외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빛의 갑옷(로마 13,12)」 을 입혀주소서.(성경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고 최인호 베드로/ 작가

**10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일반 : 절망하는 사람들**  
삶의 고통에 짓눌려 절망하는 이들이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 전교 주일**  
전교 주일을 지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선포하는 사랑임을 깨달도록 기도합니다.

# 가톨릭전례 “다섯 번째 계명에서 살인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컵은 우리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 한잔을 마시는 데 최상의 그릇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컵을 그림 물감 통이나 고약한 약품을 담는데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물을 씻어낼 수 있는 물이 있으면 더러워진 컵은 언제나 깨끗한 컵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컵을 깨뜨려 버린다면 이야기는 아주 달라집니다. 부서진 컵은 더 이상 컵으로서의 의미가 없듯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인간 존재의 파괴를 뜻합니다. 생명은 부모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전해진 선물입니다.

삶은 이 생명을 살아가는 과정이며 인류의 역사는 생명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에 대해 심오하게 가르쳐줍니다. “주 하느님께서 흠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 2,7)

가장 낮은 피조물에 불과한 흠덩이가 생명체의 정점인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숨결 덕분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연약함과 위대함을 함께 지닙니다. 인간의 위대한 생명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창조 행위에 연결되며 또한 모든 생명의 목적이신 하느님과 끊임없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신성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258항 참조)

이렇게 신성한 인간의 생명은 어떤 이유로든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고의적인 살인은 대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형제, 아벨을 죽인 카인의 살인은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인간 안에 자리 잡은 분노와 욕망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피는 생명이 머무르는 곳이며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한 인간이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척도와 요소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벨의 피를 기억하시고 그 책임을 카인에게 묻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지만 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움터 나오는 분노와 증오가 살인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살인이란 악을 근절할 길은 없습니까?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산상설교에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 는 계명을 상기시키시며 여기에 분노와 증오와 복수하는 일까지 금지하십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262항)

분노와 증오는 이해와 사랑을 소멸시켜 이기심의 싹을 틔

웁니다.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기심의 시작이며, 그것은 모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무너진 관계는 단절과 불신을 키우고, 이기심을 더욱더 증폭시켜, 최악의 경우에 개인 사이에는 살인을,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전쟁을 초래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범죄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전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에는 군인이 있듯이,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에 ‘사람을 죽이지 마라.’ 는 계명은 이웃사랑의 계명 가운데 핵심이고, 인간이 넘어서지 말아야 할 한계선이며, 인간 존엄성의 뿌리입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신명 30,19)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2258-2317항

사목국 연구실

## 가톨릭 교리 상식

### <생미사, 연미사, 교중미사란?>

#### 1. 생미사 :

- 개인과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지향으로 봉헌되는 미사
- 교회로부터 파문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비신자를 위해서도 봉헌될 수 있음

#### 2. 연미사(위령미사) :

-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지향으로 봉헌되는 미사

#### 3. 교중미사 :

- 교구장 주교나 본당 주임사제가 주일과 의무축일에 신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봉헌해야 하는 미사.
-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봉헌하기 때문에 미사예물을 바칠 수 없음.

#### 4. 관련 내용 :

- "사목 책임을 맡은 모든 이는 자기 양들을 위해 미사를 바칠 의무가 있고 이것은 하느님의 법에 의한 의무이다" <트리엔트 공의회>
- <교황 레오13세> 주교들에게도 교중미사의 의무 부과
- (모든 주일, 예수성탄, 성모승천,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78	207	46	331
헌 금	\$574	\$1,287	\$79.95	\$1,940.95

< 교무금 > \$2,135

정기환(9-12) 한서연(9-12) 이정연(10) 조상희(10)  
김영희(10) 최명숙(9-10) 송동기(7-9) 김정탁(7-9)  
이건용(10) 김영자(9) 최몽렬(8)

< 성소후원금 > -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345.28

날짜	연	지 향	봉 헌 자
10월 6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유주호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남루시아/오마리아	양엘리사벳
	생	조이사악(성윤)	문글라라(병님)
	생	윤데레사(덕림)	찬미성가대
	생	전데레사(윤자)	찬미성가대
	생	김데레사(승희)	찬미성가대
	생	채프란치스코(수진)	찬미성가대
	생	원프란치스코(광희)	찬미성가대
	생	이바로오(명국)가정	최분도(환준)
	생	양마리아(석순)	황안나
	생	영육으로고통받는이	김데레사/황데레사
	생	고혜경 생일	황안나
	생	이정우	전수산나
	생	유마리아(혜선)	이베로니카(기희)
10월 8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유주호	가족
	연	김두현	김케넷가정
10월 9일 수	연	유주호	가족
10월 10일 목	연	유주호	가족
	생	윤루카(성진)	전례성가대
10월 11일 금	연	유주호	가족
	생	정에드워드 축일	김카타리나

~~~~ 오늘 간식은 한수산나/막헬레나 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제 사 양 -

◆ 오늘은 평화신문 미주지사장 김영춘 베드로 신부님이 평화신문 홍보차 방문하시어 함께 미사를 집전하실 예정입니다.

◆ 2차 헌금 안내

10월 6일(오늘) : Catholic Voice

10월 20일 : World Mission Sunday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구역장회의 : 10월 13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아침기도, 저녁기도, 묵주기도 체크북

목적 : 신앙의 해 다섯 가지 표어 중에서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의 실천방안으로 묵주기도성월 한 달 동안 기본 기도를 생활화 함

기간 : 10월 1일 - 31일

배부 : 성전 입구 (1인당 1개씩)

◆ 요아킴/안나회 모임 - 조마오로 수녀님 특강

일시 : 10월 6일(점심식사 후) : 누구나 참석 가능

\* 1강의 :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고 가엾은 마음이, (루카15,20)

\* 2강의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요한15, 12)

◆ 전신자 대상 서예교실 개설

강사 : 최용일 시몬

문의 : 마리아회 510-703-7350

◆ 이야기 성서반 모집(첫시간 : 10월 14일)

일시 :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 저녁 7시

지도 : 조마오로 수녀님

장소 및 준비물 : 대건회관, 성경책과 공책

문의 : 김은수 로사 510-289-0903

◆ 북가주 레지오 영성 피정

일시 : 10월 12일(토) 오후 2시반 - 저녁 9시

장소 : 오클랜드 성당

지도신부 : 허윤석 요한 신부님

참가비 : 없음(석식 제공)

\* 본당 전 레지오 단원/협조단원 참석 요망(성경지참)

10월 구역모임 **클로세서 3-4장**

|      |              |           |
|------|--------------|-----------|
| 6 구역 | 10월18일(금) 6시 | 정병구 베드로 댁 |
| 9 구역 | 10월26일(토) 6시 | 김영준 사비노 댁 |

◆ Chautauqua 행사

일시 : 10월 12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반

장소 : St. Jarlath Church

2620 Pleasant St. Oakland, CA 94602

\* 많은 교우들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Got Love Conference(Love, Sex and Relationships)

일시 : 10월 12일(토)

장소 : Sobrato Pavillion at Nativity School, Menlo Park

대상 : 고등학생 이상부터 30대까지

문의 : 650-269-6279 [info@gotlove.info](mailto:info@gotlove.info)

\* 하루종일 고해성사가 있으며 영어로 진행됩니다.

◆ 무료 법률 상담 클리닉

일시 : 10월 12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 : 샌프란시스코 예수인교회

1480 Ellis St. SF, CA

문의 및 예약 : 800-871-9012(Ext. 124930)

\*당일 선착순(예약가능), 한국어/영어 통역 제공

◆ 10월 Hair Cut 봉사는 첫째, 셋째 주입니다.

◆ 10월 13일에는 9구역에서 미역국밥을 \$3에 판매합니다.

◆ 2014년 본당 달력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문의 : 사무실 510-553-9434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오전 11시/영어미사 12시 15분

- 주일학교 open house : 오늘 교중미사 후 친교실

\*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